

2018년 9월 16일  
연중 24주일(나해)

□ 교구설립 1974년 6월 1일



대한성공회 부산교구

하늘숨결

www.skhbusan.org

Busan Diocese, Anglican Church of Korea (Daehan Sungkonghoe)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99번길 5-1 / •전화 : 051)463-5742 / •팩스 : 051)463-5957

공동주보 제 146호

• 2018 교구표어  
복음으로 새롭게,  
선교로 다함께!

말안해 봤으면 말을 마라!

여객기 조종사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는데, “케이브 오케이”라는 말입니다. 하늘(Ceiling)과 시정(Visibility)이 오케이(Ok)다, 즉 하늘에 구름도 없고 가시거리가 7마일 이상 아주 좋다는 뜻입니다.

조종사가 열 서너 시간을 비행한 후 목적지 가까이 가서 공항 관제센터와 무전으로 기상을 확인했을 때, 기상이 좋지 않으면 착륙순간 위험할 수 있고, 더 나쁜면 교체공항으로 회항하거나 더 가야하므로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케이브 오케이’라고 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업이 됩니다. 저도 동료사제와 교우들로부터 지지와 존중의 말을 들으면서 사목을 좀 더 신나게 하고 싶은 한 인간입니다.

이런 갈망이 클수록, ‘가는 말이 고아와 오는 말이 곱다’라는 옛말을 곱씹어 봅니다. 나는 얼마큼 교우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 격려와 존중의 말- 을 하는지, 솔직히 자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끔씩 교회 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구석은 이렇다’라는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되는 집안이나 교회, 안 되는 집구석이나 교회의 차이는 ‘구성원 서로 어떤 대화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되는 ‘집안’이나 ‘교회’는

- 1) 서로 사랑, 고백의 말이 풍성합니다.
- 2) 지적하는 말보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말이 풍성합니다.
- 3) 부정적인 말보다 ‘함께 합시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등, 긍정적인 말이 풍성합니다.
- 4) 시기나 질투의 말, 숨어 험담하는 뒷담화보다 진솔하고 겸손의 말이 풍성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패쇄적이고 닫힌 말이 있어 삶의 의욕을 꺾고 기를 죽이며, 반대로 개방적이고 열린 말이 있어 생명을 풍성하게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복음이란 ‘살리는 복된 말’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책에서 건강한 교회의 일곱 가지 지표를 소개하는데, 그 지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환영’을 거론 합니다. ‘새로 온 사람을 어떻게 환영하는 가’에 건강한 교회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 그 이유는 환영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개방하고 열린 말로 그들을 축복하고 영혼을 살리는 첫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고백의 말이 우리 안에 하느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듯이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끌어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일이 됨을 기억합니다.

(9월 23일, 연중 25주일 묵상글 기고자- 정준석 사제/ 마강 9월 16일)

대한성공회 부산교구 ○ ○ 교회

부산교구는  
‘교회다움’·‘교회다움’을  
바라봅니다.

각 교회 안내란

✧ **개회예식**

1. **입당성가** : ---장 / 다함께
2. **정심기도** (예식서 6쪽) / 집례자
3. **죄의고백** (예식서 6쪽) / 다함께  
(집례자 특정문)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니다.
4. **기원송가 : 거룩하신 하느님** (성가 89장)

✧ **말씀의 전례**

5. **본기도** (예식서 13쪽) / 집례자  
(집례자) 자비하신 하느님, 구하오니, 우리를 도우시어 서로 용서하며, 어떤 처지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함께) 아멘.
6. **제1독서 : 잠언 1:20-33 / 김---**
7. **성시 : 시편 19 / 다함께**



-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속삭이시고
-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 일러| 줍니다.
- 낮은 낮에게 그 말을 | 전하고
- 밤은 밤에게 그 일을 | 알려| 줍니다.
-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 퍼지고
- 온 세상 땅끝까지 | 번져| 갑니다.
-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사람에게 생기를 돌리려주고
- 주님의 법도는 변함없어  
어리석은 자도 | 깨우| 쳐준다.
- 뉘 있어 제 허물을 다 | 알리| 이까?
- 모르고 짓는 죄일랑 말꿈히 | 씻어| 주소서.
- 내 바위요, 내 구원자이신 | 주-| 이여,  
○ 내 생각과 내 말이 언제나  
당신 마음에 | 들게| 하소서.
- 영광이 | 성부와 | 성자와 | 성령께
- 처음과 같이 | 지금도 | 그리고 영 | 원히 | 아-| 멘

8. **제2독서 : 야고 3:1-12 / 최---**

9. **찬미성가** : ---장 / 다함께

10. **복음환호송** (예식서 14쪽) / 집례자  
(집례자 특정문)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다함께) 알렐루야, 알렐루야.

11. **복음 : 마르 8:27-38 / 집례자**
12. **설교** / 집례자
13. **신앙고백 / 니케아신경**(예식서 16쪽)
14.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김---**

✧ **성찬의 전례**

15. **평화의 인사** (예식서 22쪽) / 다함께  
(집례자 특정문)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서로에게 속했으며, 평화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약속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16. **광고** / 신자회장
17. **봉헌성가 : ---장 / 봉헌봉사 : 석---**  
(집례자 봉헌준비기도)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천상의 빵을 먹여주시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소서.  
(다함께) 아멘.

18. **성찬기도 - 1양식** (예식서 23쪽) / 다함께  
(감사서문 특송)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 하시나이다.
19. **거룩하시다 - A곡** (예식서 25쪽)
20. **주의 기도** (예식서 28쪽) / 다함께
21. **성체나눔** (예식서 29쪽) / 다함께
22. **하느님의 어린양 - A곡** (예식서 29쪽)
23. **영성체와 영성체성가 : ---장 / 다함께**
24. **영성체 후 기도** / 다함께  
(다함께) 인자하신 성부여, 비오니, 천상의 양식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고귀한 희생으로 열어주신 영원한 구원의 길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파송예식**

25. **축복기도** (예식서 32쪽) / 다함께  
(집례자 특정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변함없는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다함께) 아멘.
26. **파송과 파송성가 : ---장 / 다함께**

## ■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1. 교회를 위하여

- 포항성당 복구를 위한 기도와 봉헌운동을 위하여
- 하느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되도록

교회 기도제목 추가

### 2.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 진정한 독립과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우리 민족이 되도록
- 힘든 이웃들의 아픔과 짐을 함께 지는 나라가 되도록

### 3.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 정요셉 사제, 이리처드 사제, 박하임(성직지망자)의 치유를 위하여

교회 기도제목 추가

### 4. 우리의 소원을 위하여

.

교회 기도제목 추가

## ■ 주간 기도 안내

각 교회 안내란



## ■ 포항 성 안드레아 성당 복구를 위한 기도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친히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교구를 더욱 주님의 몸 된  
교회답게 세워주소서.

우리는 질그릇 같이 연약하오나  
하느님의 능력은 크시오니,  
지진으로 무너진 포항 성 안드레아 성당이  
하느님의 뜻 가운데 복구되고  
교회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성당 복구를 위하여  
온 교회의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드리며 봉헌하오니,  
주님의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되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7년 11월 30일 성 안드레아 축일에

## ■ 주간 축일과 전례독서

날자	전례색	축일 및 기념일	감사성찬례 전례독서
9.17	녹색		1고린 11:17-26, 33 / 시편 40:8-13 / 루가 7:1-10
9.18	녹색		1고린 12:12-14, 27-31 / 시편 100 / 루가 7:11-17
9.19	자/백색	추계제(성직자의 성소를 위해) 탈수스의 데오도르(칸타베리아대주교, 690년)	민수 11:16-17, 24-29 / 시편 99 / 1고린 3:5-11 / 요한 4:31-38
9.20	녹색		1고린 15:1-11 / 시편 118:1-2, 17-20 / 루가 7:36-50
9.21	홍색	사도 성 마태오(복음사가) 추계제(수도자와 성직후보자의 성소를 위해)	잠언 3:13-18 / 시편 119:65-72 / 2고린 4:1-6 / 마태 9:9-13
9.22	자색	추계제(평신도의 성소를 위해)	출애 19:3-8 / 시편 15 / 1베드 4:7-11 / 마태 16:24-27

